마구니도 수용할 수 있어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 23면에서 계속

다. 아시겠어요?

제 인생은 왜 이럴까요

질문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늘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정된 직장 없이 이 일 저 일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은 왜 이럴까요?

답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기 이전에 살던 그 모두가 여러분의 컴퓨터에 모두가 입력이 돼서 그 입력된 것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명이니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한탄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공,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자꾸자꾸 시공이 없이 돌아가고, 마음도 고정된 게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모든 일체가 고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 그 주인공이라는 것이 바로 컴퓨터라면 지금 현재 사는 것이 거기서 입력이 돼서 나왔다고 믿고 다시 거기다 일임해서 맡겨 놓고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됐던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의 마음을 평등한 마음으로서 웃으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지혜 또는 부드러운 말로써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모든 걸 맡겨 놓고 간다면, 바로 그게 입력이 되니까 자꾸 되돌아 나와서 지금 현실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자니 운명이니,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이러한 모든 게 무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지기다 하는 것은 남의 속을 아는 것, 마음을 아는 거. 일체 만물, 꽃 한 송이라도, 풀 한 포기라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 연결. 팩스는 내 몸뚱이가 아닌 마음 자체에 모습 없는 모습이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오는 그런 능력. 일체 모든 소리를 전부,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로 통신기.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바로 천체망원경.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안으로 전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븐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오븐 속에 물건을 만들어 먹고 싶은 것을 맘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갖추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그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기구가 그대로 그 재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면 '주인공, 당신만이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또는 가난하면 '당신만이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또는 모든 가정의 화목도 '당신만이 화목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하고 그 일체를 다,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일체를 다 거기다 놓는다면 자기 한마음으로써 모든 걸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대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공을 발견한다면, 전 우주의 근본도 여러분의 주인공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모든 일체의 만물과도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만 발견한다면, 거기서 생물학 천문학 지리학 또는 의학 문학, 모든 것이 일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파도 '거기서 병난 거니깐 네가 낫게도 할 수도 있지 않으냐. 낫게 하라!' 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으면 여러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병난 거니까 거기서 고쳐야죠. 병원에서 30%를 고쳐 준다 한다면 여러분이 70%를 보충해야 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자유스럽게 삽니다. 왜냐. 병이 나도 걱정을 안 하니까. 의사는 거기 있으니까. 몸속에 수만 가지의 생명의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콩팥이 아프면 콩팥 공장에서 낫게 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또 뇌에서 병난 거는 뇌에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그 의식들이 다 낫게 하고 또는 어떠한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게 있다고, 너는 알잖아.' 하고서, 그렇게 서로 상응하면서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모든 일체를 다 거기서 하니까, 가정도 화목하고 사랑하게 되고 또는 싸움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항상 편안하게 살게 되고 그러니 병이 나도 걱정 없고, 또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무한량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자유스럽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가족이 있어도 외로워요

질문 저는 어릴 적 보육원에서 자라서 내 가정을 꾸려서 다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해서 자식 둘을 낳고 사는데 남편도 자식도 내 맘 같지 않아 세월이 흐를수록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것도 다 내 탓이겠지요?

답변 우리 인간에게는 오신통이라는 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숙명통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이 입력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 있어서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나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내 팔자가 이래? 운명이 이래? 왜 나는 되는 일마다 안돼?' 이런 한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돌려라.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자기 탓으로 돌려라.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 한테 맡겨 놓고 자기밖에는, 거기서 잘못된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믿을 때에 비로소 지금 현재의 입력이 들어가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이소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생활이 과학적이면서도 그렇게 광대무변한 법이 여러분 한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생각이 빛보다 더 빨라요.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다른 데 좀 가 보십시오. 자기 집에 가 보십시오. 갔다 오실 수 있겠죠? 마음이라는 건 내놓을 수 없으면서도 그렇게 무한의 능력을 가졌다고요. 체가 없는 마음은 어디라도 이 지구 바깥의 꼭대기 우주까지도 탐험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집에 지금 가서 어디 뭐가 놓이고 뭐가 놓였다 하는 거를 한번 보고 와 보세요. 그와 같은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것은 그렇게 값싼 게 마음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한테 보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없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손자가 왔을 때는 할머니가 되고, 금방 남편이 들어오니깐 아내가 됐습니다. 자동적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하니까 금방 어머니가 돼 버렸죠. 그래서 어떤 것이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애기 적이 납니까, 젊었을 때가 납니까, 늙었을 때가 납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름해서 '부처'라고도 하고 이름해서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놓고선 상표처럼 내 거니 네 거니 그런 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죠.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때리고 온통 집안을 부숴 놓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진짜로 건지려면 말로 하지 말고 이 마음 주인공 자체에 모든 것을, 너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으니 주인공에 모두 스위치를 눌러 놓으면, '거기에서 밖에 해결 못 한다' 하고 맡겨 놓고 평등한 마음으로서 웃으면서 받아들여 주고 또는 부드러운 말로 해 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럭할 때는 그 사람 마음은 슬그머니 추운 겨울의 얼음이 녹아서 봄이 되듯이 그렇게 녹아 버립니다. 녹아 버리고 '내가 왜 이럭하지?' 하면서 그 모든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서로 전기가 들어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자식이 나쁘게 해도 "저놈의 새끼 나가서 뒈지지도 않나?" 이런 욕들을 하는가 하면, 남편이 나가서 저거 한다면 "저놈 저놈, 오다가 저 차에라도 치여 죽지 않나?" 이런 소릴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는 것은,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립니다.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일 수도 있고 사랑을 가져오고 구덩이에서 건져 낼 수도 있는 이런 위력을 가진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교에서도 그렇고 모두 타의에서 구하는데, 요만한 거 꼬리표 하나 붙여 놓고 요만한 전등 하나 켜 놓고 그걸 인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될 일입니까? 한생각을 잘하면 그게 인등을 백 번 천 번 켠 거보다도 더 위력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을 냄으로써 그것은 마음의 인등입니다. 마음 냄으로써, 마음이 밝아짐으로써, 이건 자가발전소와 같은 겁니다. 그런 마음의 인등을 켜야 합니다. 그렇게 가깝게 내 보배를 두고도 써먹지 못하고 항상 바깥으로 끄달리니 외로운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 안에 소중한 보배가 있음을 믿고 이 마음공부를 해 보십시오. 극락과 지옥이 내 한생각에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 주인공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사량 하는 것도 없습니다.
> 그 도리를 알아야 사방천이 밝아서
> 참 스스로서 그 오온이 밝아서, 칠보가 정말 가득 차 있어서
> 내가 그대로 자유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찰의 화려한 색채의 뜻은

질문 대부분 사찰에 가 보면 화려한 색채로 꾸며져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울긋불긋한 그런 색감에 약간은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게 된 뜻이 있겠지요?

답변 그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울긋불긋하게 표현한 것은 이 세상 돌아가는 색신을 말해요. 우리 지금 세상 모두, 늙고 젊고 애기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이런 것을 전부 돌아가면서, 또 나무는 나무대로 꽃이 피고 또 물은 물대로 흐르고, 모든 것이 사계절이 있어서 봄이 되면 이렇게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추수도 해 들이고, 이러는 거를 전체 한데 모아서 이것을 울긋불긋이라고 할 수도 있죠, 뜻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그거를 잘못 생각을 한다면 마구니 소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구니도 수용할 수 있어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구니라고 피하고 나쁘다고 피하고 좋다고 갖고 이런다면 이 진리를 탐구할 수가 없어요.